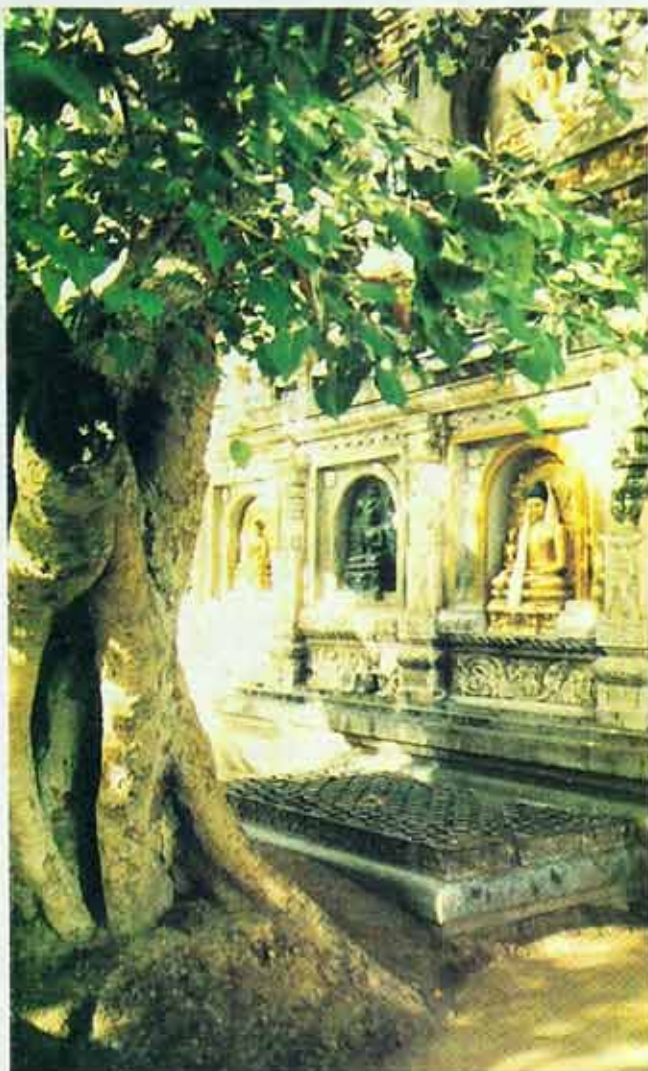


지혜와 풍요...속진 씻는 수행자 연상



○인도 보드거야 대보리사의 보리수. 보리수 아래 금강좌(金剛座)를 놓아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그 자리를 기념하고 있다.



○인도 쿠시나गर아 열반당 앞의 사리방수.



○변산 내소사 입구의 진나무 숲길.

월 2회 연재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나무

나

무는 오랜 옛날부터 신성한 생명력, 지혜와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신화와 민담에서 많이 발견되는 신수(神樹)는 천계와 인간 세계를 잇는 매개체로 인간외 경배의 대상이 되어왔다. 또 마을에는 으레 당산나무가 있어 기원의 대상이 되었고 마을을 수호하는 수호신 역할도 했다. 또 인재(人材)나 재목(材木)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나무는 인격을 나타내는 말로도 쓰이고 집안의 기둥이나 대들보이니 하는 말에서와 같이 정신적 지주로도 비유된다.

불교에서의 나무는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공덕으로 '계달음' '지혜' '수행'을 상징한다. 대부분의 산사 초입에는 천왕문에 도달하기까지 양 옆 길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힘차게 도열하고 있어 참배객들의 속진을 먼저 씻어준다. 계룡산 갑사, 조계산 선암사, 능가산 내소사, 오대산 월정사 등의 나무들이 특히 이름나 있다.

부처님가르침을 나무에 새긴 팔만대장경판과 아름다운 목조전골의 대표격인 저 부석사 무량수전을 보라. 그냥 나무가 아니라 그 자체가 진리를 현현하는 선지식으로 언제나 중생들을 깨닫게 하는 지남(指南)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보리수

부처님이 이 나무 아래에서 성도(成道)했다 하여 '계달음을 이룬 나무'라는 뜻에서 보리수(菩提樹)라고 한다. 보리수는, 마야부인이 낫달라 태지를 출산한 룸비니동산의 무우수(無憂樹),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사리방수(沙利毘樹)와 함께 불교의 3대 성수(聖樹)로 꼽힌다. 민호스님도 사리수 아래에서 태어났고 그 나무 아래에 잠을 지었다고 한다. 또 보리수는 부처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하는데, 석가의 보리수는 팔발라수(摩鉢羅樹), 미래세에 성불할 비록 불의 보리수는 용화수(龍華樹)다. 계달음을 뜻하여 각수(覺樹)라 하고, 성수(聖樹)로 여겨 불수(佛樹)라고도 한다.

잣나무

잣나무는 진리를 깨달는 수행의 상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불교에서의 잣나무는 불전(佛殿)의 정인과 연결되어, 진리를 깨닫기 위한 선수행을 함축하고 있다.

이는 중국 당나라 조주스님이 불교의 도(道)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한 '뜰 앞의 잣나무'라고 한 화두 때문에 더욱 널리 알려진 상징이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라고 묻자 운문선사가 '마른 툇막대기'라고 한 것처럼, 사물을 자체에는 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망상분별을 씻어 내라는 의미로 쓰인다.

소나무

고승담반야(古塔談般若) 유조농진어(幽鳥弄眞如) 늙은 소나무는 반야를 애기하고 그윽이 깃든 새는 진어를 희롱하네 소문가의 (人天眼目)에 나오는 이 시구는 솔바람 소리나, 자저귀는 새 소리 등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이 부처님의 현현이며 설법이라는 뜻이다. 천년의 긴 세월을 지나도록 눈·비·바람을 견디면서도 전혀

정한다. 관세음보살이 현신(現身)할 때에는 33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33현신 중의 제1위가 양류관음(楊柳觀音)으로, 흔히 왼손을 왼쪽 가슴에 대고 오른손에 버들가지를 한 모습으로 표현된다. 이는 버들가지가 살바람에 나부끼듯이, 미친한 중생의 작은 소원도 귀기울여 듣는 보살도의 자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버들가지는 관세음보살의 정병 속에 든 불사(不死)의 감로수(甘露水)를 고통받는 중생에게 뿌리는데도 사용한다.

대나무

자비와 수행정진을 상징하는 대나무를 두고 장각 예심(1178~1234)은 '날마다 갈로 에 짓고 때로는 법음을 내니, 속세를 떠나 자연을 도우며, 큰 자비의 마음을 듣는다'고 하였다. 선가에서 수행자를 지도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서 죽비가 있다. 수행자의 고통이나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어깨를 할 때 사용하는데, 이 때 대나무는 그 울리는 음향과 죽비로 구획화 되어 수행의 정진을 상징한다.

목어

나무를 꺾어 물고기 모양을 만들고, 속을 비게 한 다음 그 속을 두드려 소리를 내는 목어(木魚)는 범종, 범고, 운판과 함께 사물(四物) 가운데 하나인 법구다. 목어는 중생들이 속세의 미혹에서 깨어나 해탈하기를 기원하고 일깨우는 불성의 소리를 내는 도구이다. 일설에는 물고기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을 감지 않으므로 수행자로 하여금 밤낮으로 도를 닦으라는 뜻으로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목탁

목탁(木鐺)은 목어가 변형화되어 나타난 것. 의례에서 목탁의 실질적 기능은 열불이나 죽경에 박자를 맞추는데 있으나, 열불이나 죽경의 의미를 강화한다는 반에서 중생 제도라는 상징성을 띤다. 대추나무·박달나무·은행나무·과목(樺木) 등으로 만든다. 김정은 기자 (jskim@buddhapia.com)



○한암스님의 지팡이가 땅에 꽂혀 자랐다는 단풍나무. 오대산 상원사 사자암에 있다.

화제가 된 나무

운주사 노송 '백년 수도' 상원사 단풍목은 '지팡이'

순원 송광사 일주문을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보조국사의 지팡이 나무가 있다. 보조국사가 짓고 다녔던 한나무 지팡이를 이곳에 꽂았는데 그 나무가 자라났다고 하며, 스님이 돌아가시던 날 이 나무도 시들어져서 결국 죽었다고 한다. 지금은 항상만 즐기만 갖대 처할 우뚝 솟아있다.

부석사 조사당 앞에 지리고 있는 선비화(仙筆花)는 의상대사가 꽂은 지팡이가 나무로 변했다는 전설을 담고 있다.

또 오대산 상원사 사자암에는 1926년 한암스님이 풍은사에서부터 짓고 온 지팡이를 꽂은 것이 자랐다고 하는 단풍나무가 있다.

운주사의 화양목과 운문사의 소나무, 속리산 법주사의 정이품송, 용문사 은행나무 등은 나무에 얽힌 사연은 물론 수행승 뜻깊은 고매한 모습으로 절을 찾는 이들에게 감화를 준다.

운주사 화양목은 조선조 정조임금이 부왕인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사도세자 능 근처에 운주사를 중창하며 심은 것.

경도 문묘사 경내에 들어서면 녹매의 거대한 우산을 펼쳐 놓은 것 같은 수령 5백년의 노송(老松)을 만나게 된다. 이 소나무는 5백년 동안 강경소리를 듣고 도를 닦아 몸을 낮추는(열로 지라느) 도량을 가졌다 하여 '삼정(三定)에 든 소나무'라 불린다. 수백 해년의 숙려한 법주사 정이품송은 소나무 하면 바로 연상할 정도로 유명한 사할나무이다.

부처님 보리수 아래서 成道

조주스님 '뜰 앞의 잣나무' 널리 알려진 화두 최초의 절 죽림정사 지금도 대나무 우거져



○부석사 목어. '날 깨어있어라'는 뜻으로 만든 물고기모양의 법구.

그 빛깔이 변치 않는 소나무의 푸르름은 본래의 불심(佛心)·불성(佛性)이 번나 땅상에 오염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석가 세존인과보제경>에는 소나무가 많이 그려져 있어 소나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보리장(語釋提場)의 경우, 불교에서 최상의 이상인 불타 정각의 지혜, 즉 도(道)·지(智)·각(覺) 삼보리의 불멸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보리장에 이른 석가의 길상 서상(吉祥祥祥)보살이 구름을 타고 소나무 아래로 날아오고 있다. 여기서는 보리수의 대명목으로 소나무를 그리고 있다. 또한 소나무는 단단하고 잘 썩지 않아 사찰건축의 목재나 목기 등의 재료로 많이 쓰인다.

버들나무

버들가지는 대자대비의 관세음보살을 상

건·강·보·조·식·품·허·가

몸을 다스리는 (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기쁘고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지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나 성인이라야 세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상을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장녕(寧·편안함)·넷째 유덕(攷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지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중 「지신(治身) 자연건강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방장산)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물 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 스님이 40여년간은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깨와 감시초 외 10여종의 첨가물【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 격
불로화정
정가 50만원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40만원(2개월분)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정생(正生)하면서 신에 사는 사람의 신생(神生)의 주체(主體)는 세계질에 무른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놀라운 효능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나. 나무는 자기 몸을 불태워 없으므로 불을 생(生)하기【五行(五相)의 수생(水生)의 나무인 소나무는 동방(東方·五行의 三木)의 나쁜 한귀를 대하고 상징한다.】

「솔효소정액」은 솔잎, 솔눈, 솔배변, 솔미디, 솔향기루, 솔진, 솔근박피, 솔목피, 솔이벗, 백복령, 적복령, 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가(正果)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 당귀, 감초, 표고버섯, 홍삼, 기러기,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낮게 하여 병의 예방도 하여 정액(精液)·기(氣)·신(神)이 원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효정액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있지 않아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 여러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든 것이다.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 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열매로 된 선식(仙食)으로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3개월 정도의 먹어도 비만체중 20% 이상 빠지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성인병과 난치병의 예방 및 치료와 특히 당뇨병에 효력이 있으며 몸무게가 가벼워지고 후유증도 없는 기적의 솔효식품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근육통,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관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 번호【「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 현으며 건강보조식품 허가【98.3.31】를 받았으며 앞으로 우리 소나무 자연 건강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예정이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원액 2,800ml(700ml 4병,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동독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솔선식(松仙食)

원판 약 1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동독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 구입문의 053)628-9145 / 053)655-2227 / 011)808-8880
● 입금구좌: 대구은행 033-07-172508 예금주: 대구여래원